

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6차 간담회 결과 보고

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'정책목표 및 과제'를 수립하기 위한 기획단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개요

- 일시 : '19. 10. 18.(금) 13:30~16:00
- 장소 : 정부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3회의실(2동 303호)
- 참석 : 연구협력과장, 기획단 등 17명
- 내용
 -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생산·RM·AM 단계별 추진과제 토의
 - 향후 추진 계획 등 논의

□ 주요 논의 내용

<생산단계>

- 기록의 정의 및 기록화 대상 명확화
 - 내부 메일(쪽지, 메신저 포함) 관리 검토
 - 시청각기록물은 선별 수집이 필요
 - 행정박물, 간행물을 기록의 범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
- 기관별 문서화 대상은 기관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 - 단위과제와 연계, 기록부존재 공익침해심사제도 도입 등과 연계
- 비전자기록물 등록에 대한 처리과의 책임 명확화
- 속기록(녹음기록) 생산 회의 지정과 같이 주요 회의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음
- 기관유형별 단위과제 정비 또는 표준화가 필요. 또한 단위과제 신설·변경에

대한 권한 획득이 중요(일부 지자체는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음)

- 처리과의 장을 기록물관리 책임자로 지정
- 생산자의 입장에서 기록관리가 업무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동화, 시스템화 필요

<RM 단계>

- 기록관의 업무범위
 - 기록관리 고유업무 + 개인정보, 보안, 민원 등으로 확대 가능한지?
 -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기록관의 득과 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기록관 단위의 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
 - 지자체의 경우 역사·민간기록 수집도 필요
- 기록관의 책임과 역할 강화
 - 국가기록원의 권한을 기록관으로 이양
 - 기관 주요 기록의 관리자로서 기록관 역할 정립
 - 기관내 주요 기록 생산시스템에 대한 기록연구사의 접근권한 부여
 - 기록관의 역할에 따른 인력 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
- 기관특성 및 유형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
 - 기관 자체적으로 집중 업무 발굴 및 평가지표화

<AM 단계>

- 국가기록원
 - 각급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
 - 도서관, 박물관 등 유관기관 협의회 구축 필요

<기타>

- 국가기록관리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
- 중장기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우선순위 또는 핵심과제 결정이 필요

- 행정기관 외 정부산하 공사·공단, 대학 등의 특성을 100% 반영하기는 어려움. 선택과 집중이 필요

<향후 일정>

-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추가 및 보완사항 서면으로 제출 : 10월말
- 각급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 추진과제(안) 마련 : 11월
- 중장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(안)에 대한 기획단 최종 검토 : 12월

□ 향후 계획

- 기획단 7차 간담회(12월 중순 예정)